

고린도전서 1 장

1.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바울과 소스데네가 성도(우리도 포함)에게: 기본적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것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믿고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2. 요한은 자신이 쓴 글에서 자신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바울은 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유독 강조하는 걸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 부름받은 과정이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가 생길 여지가 있었다. 만약 자신의 사도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뿌리 채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함께 문안하는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행 18:17) 문제는 이 이름이 로마의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한다.

3. '놈현스럽다'는 말은 은근히 기대했다가 실망해버린 경우에 쓰는 신조어다.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생긴 말이다. '고린도화하다'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음행을 즐긴다'는 뜻으로 쓰였단다. 그럴 정도로 향락과 방탕의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 작은 양의 소금? 돼지 목에 진주? 실제로는 화려한 도시에 초라한 건물 이었고, 대단한 사람들(부유한 자유민) 사이에 초라한 사람들(주로 노예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는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4.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

미리 알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고 난 후에 알았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자 애를 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여 살다보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려진다. 미리 알려고 하지 말자. 오죽하면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오실지 도무지 알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5.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2)?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표현을 찾으라.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곧 교회다. 절대로, 절대로 건물이나 땅이 아니다. 교회 개척이란 무슨 의미인가? 건물 세우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는 과정이다. 천국 갈 때 건물을 가져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미 거룩하여졌다.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신분에게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성도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산을 옮겨라고 해도 옮겨야 할 판인데 이렇게 쉽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다 하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우리가 성도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늘 불안하고, 불안투성이인 사람은 성도라기보다는 성도가 될 어린 새싹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4).

7.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5): 고린도 성도들은 말도 잘 했나보다. 대적과 싸우려면 말도 잘 해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한다. 그래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덩이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증거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자신이 가르친 복음을 말한다.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머리만 굽어져서 교만해진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목사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영락없는 우민화 정책이다. 오히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목사가 잘 모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목사는 열심히 가르칠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의 신앙이 견고한 법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어떻게 그 분을 제대로 신뢰하겠는가?

8.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표현을 이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는 것(9):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부부, 연인,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인간이 차버렸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다.

9. 언제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7): 성도는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내세주의자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임시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릴 때는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날에는 쓰레기일 뿐이다.

10.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8):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켈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Perseverance)'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견인(堅忍)이란 굳게 참고 견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다.

11. 무소식이 회소식이란다. 아무런 일도 없으면 굳이 편지 쓸 이유가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10-11)?

이유: 분쟁이 있기 때문

해결책: 하나가 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10) 그러기 위해서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것이다(18-31).

12.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될 수 있는가?

미련한 자를 물어 지혜로운 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이 계심을 앎으로(18-31):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심을 안다면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 자랑할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자랑하라는 것이다(신 8:18).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지 않는다.

13. 그리스도인들에게 분쟁(나아가 분열)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머리가 하나인데(13):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형제간이라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다가도 아버지 앞에 함께 앉아야 한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야 한다. 서로 양보하면서 속히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14.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었던 모양이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이다. 바울이 보기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고함소리는 참으로 멋지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파만 있어야겠네! 그리스도파만 있다면 이미 그것은 파가 아니라 한 몸이다. 세례는 주의 이름으로 준 것이므로 누가 주었느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마저 인정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베풀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단다. 예수교와 기독교(그리스도의 한자식 음역)교로 나누어진 탓이다. 교파가 나누어진 주원인도 사실은 인간의 교만 때문 아닐까? 잘났다고 쫓아내고, 잘났다고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라고 맨날 고백하고(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인가 보다.

15.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그리스도파)라는 말도 여기서는 책망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어떻게 나쁜 말이 되는가?

그리스도를 인간(바울, 아볼로, 게바)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리스도파에 종속되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파도 이들과 대등한 파로 나누어 다투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런 파벌을 형성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마도 세 파벌에 속하지 않은 무리들이 불인 이름 아닐까?

16.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긴 이유는 어떤 이념이나 교리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혹은 과도한 존경심 때문에 생긴 모양이다. 어느 특정한 목사님이 몹시 좋으면 어떡하지?

좋아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거나 싫어해서 파당을 짓거나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머리되신 한 분 예수님을 잊지 않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 이외의 전도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이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17.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이 감사할 일이지 많이 주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감사할 일인가(14)?

비정상적인 현실 때문(세례 받은 것을 마치 무슨 권세인 것처럼 여기는):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었다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역설이다.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안도의 한숨이다. 심한 책망이기도 하다. 그리스보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다가 회심한 사람(행 18:8)인 것 같다.

18.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여야 한다'는 말인데(17), 세례를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닌가?

복음보다는 세례라는 형식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하는 말: 바울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더 가르치고 세례 주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본질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때는 본질을 보라는 뜻으로 지엽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경우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나 표시여야 하는데 목표가 복음이 아니라 세례인 경우에는 이런 경고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표시로서 행하는 세례는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시 중의 하나다.

19.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한단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말의 지혜'가 뭔가?

인간적인 지혜, 혹은 달변: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말 만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거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어,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지만 옛날 헬라 사람들에게는 수사학이 중요한 과목이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도 소위 말 잘하는 사람, 혹은 말발이 센 사람들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복음은 그런 류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늘날 도덕적, 철학적, 정치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설교들도 이런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20.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인가?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도구였기 때문이다.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얘기를 누가 들으려 하겠는가?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집행하던 밧줄이라며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21.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에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아서 사야 할 텐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데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빼버린 채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말의 지혜)은 복음이 아니다.

22. 하나님은 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선비, 변사를 싫어하시는가(19-20)?

하나님대신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의 개인적인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혜나, 총명이나, 기탁 다른 능력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당부하시는 것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셨다 (신 8:11-20).

23.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이다. 그 방법이 전도이다.

24. 전도를 왜 미련한 것이라고 할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말이 먹힐지 말지 알 수 없는 판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으니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미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결국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다. 전도는 우리가 하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25.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려면 기적을 행해야 하고, 헬라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22).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가장 미련하고, 거리끼는 방법을 쓰셨다: 기적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헬라인의 지혜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 복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다. 인간적인 능력을 지닌 자들이 더 쉽게 하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구원에 인간의 능력이 전혀 소용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26. 하나님이 미련하거나 약할 수가 있을까(25)?

그럴 수 없다: (무리하게 하나님을) 사람과 대비시켜서 설명하려다 보니 그런 표현이 나왔을 뿐이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미련하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인간의 눈이 그 모양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보고 듣는 법이다. 그런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수준을 낮춰야 하는 법이다.

27. 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련한 짓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26) 지혜롭지도(지식적), 능하지도(정치적), 문벌이 좋은 것(사회적)도 아닌 너희를 부른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련한 짓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너희를 택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잘난 점이 있더라도 잘났다고 빠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조건을 따라 부르시지 않았다.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대체로 하류층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복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28. 군사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삿 7:2-3),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신 17:16), 백성의 수를 헤아리지 말라(대상 21:1-8)... 왜 그러셨을까?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29): 14만이 넘는 적군과 싸워야 할 군사 3만2천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겨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으니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미련한 일)고 하셨다. 자신의 군사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다.

29. 자랑하고 싶어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이다(30):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나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란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꺼내면 결국에 가서 보면 마누라 자랑이더라. 잘난 자식을 둔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건 결국은 자식 자랑을 하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말 아닐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다.

(렘 9: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고린도전서 2 장

1.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1)는 게 무슨 말일까? 설교나 성경을 말로 가르치지 않으면? 지혜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유식한 인간의 말이나 말재주를 부리지 않았다는 뜻: 잔피,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말씀이 중요하다면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흥미롭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2. 복음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보증한 것이니까: 복음의 기획자, 실행자, 홍보자가 하나님이시니 무엇이 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3.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단다(2).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의 구체적인 예는 뭘까?

인간의 말 재주나 철학, 도덕: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말도 않고 재주도 부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동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그러면 거꾸로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온갖 말과 지혜를 다 동원했다는 말이 된다(4절의 '내 말과 내 전도함', 6절의 '지혜를 말하노니'). 오죽하면 '말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4. 바울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3)?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한 조심스러움이다. 혹시 실수라도 해서 누군가가 실족할까 하는 두려움이다. 어린 새싹을 다루는 농부처럼,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당대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한 바울이지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는 이렇었다. 이렇게 사역할 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려면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하라.

5.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저 기적만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을까(4,5)? 아니다. 분명히 열심히 말을 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을까?

지혜의 권하는 말(4), 사람의 지혜(5)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같은 노력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열심히 말을 하고, 지혜롭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간절하게 설교를 하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나의 인간적인 목적이나 의도 하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에서 된 일이란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6. 어린 아이들에게는 해줄 수 없지만 어른이 되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니까 하는 말인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말해도 어리석거나 거리낄 뿐이다. 믿는 성도들만(=온전한 자)이 아이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려는데, 그것은 만세 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것이다(7).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7. 비밀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는 *secret*도 있고, *mystery*도 있다. 7절의 비밀은 어느 것일까?

mystery: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8. '영광'이란 단어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출 24:17, 민 14:10, 시 24:7-10).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이었다(행 7:2).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8, 약 2:1). 그런데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는 날의 우리 모습이 영광스런 하나님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함으로 깨어진 우리의 본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사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것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9. 오래 전에 통일교에서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라는 제목으로 신문 전면엔 광고를 냈다. 요지는 '예수는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실수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무를 완성치 못했으므로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느라고 인용한 구절이 8절이다. 이 구절의 인용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관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9):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임무를 완성치 못한 것이 아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는 죽으려고 왔다고 했다.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스스로 죽을 곳으로 찾아가셔서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도전하셨다.

10.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비밀스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된 일이다. 세상의 내로라하는 관원들도 알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령이 보이셨다(10): 세상의 관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예수를 죽였을 뿐이지만 성령이 보여주신 바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누가 알고 가르치겠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12).

11. 성령은 놀라운 비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11):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다. 자연인의 생각과 믿음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다. 즉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12. 13-15절을 비유로 말한다면 이렇다. 그림이나 음악을 평가하는 일은 한 사람의 전문가가 다수의 비전문가보다 낫다. 동일한 음악을 들으면서도 누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령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자가 되라: 아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먹는 것과 노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겠지만 누구의 철학이 더 심오한지 판단할 능력도 없음은 자명하다. 비슷한 이치로 영에 속한 일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야 분별이 가능하다. 영적인 실력을 갖추라는 말이다.

13. 15절을 비유로 설명한다면, '전문 분야에 관한(예컨대 바둑, 전쟁) 상수는 하수의 생각을 험히 읽을 수 있다. 하수는 죽어도 상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란 말인가?

신령한 자가 되라: 영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에 비하면 몇 수 높은 상수인 셈이다. 도무지 속을 짐작할 수 없는 상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느냐?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런 질문도 못 받는다면?

14. 16절의 첫 문장은 인용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 그러니 어찌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셈이다.

15. 2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라.

성부 하나님: 미리 정하심(7), 알지 못하게 하심(9),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2, 8),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10-12), 가르치심(13).

삼위일체 교리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피를 뿌리는 희생을 치르며 세워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사실도 선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삼위일체란 말은 후대에 생겨났지만 그 사상은 본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16.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해 보라.

말뿐 아니라 능력도(4)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7) ↔ 없어질 것(6), 영광의 주를 못 박는 것(8)

17.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비교해 보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8-9) ↔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16)

사람의 말로 가르침(13) ↔ 성령이 가르침(13)

고린도전서 3 장

1. 앞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는다?

너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느냐고 꾸중하기 위함(1-2): 당연히 어른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아이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책망이다.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겠느냐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다. 어린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한다. 이해도 하기 어려운 교리나 성경구절을 그냥 퍼 먹이는 교사는 무책임한 교사다. 바울이 밥이 아닌 젖으로 먹였다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치고 대했다는 말이다.

2.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3):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상당한 비난이다. 육체의 저급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지적이다. 너 아직도 젖 먹니? 아직도 오줌 싸니? 아직도... ?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니 어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3.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분 나쁜 것 아닐까? 감히 아볼로파가 있어? 꼭 있어야 한다면 무슨 파가 있어야 할까?

바울파만 있어도 바울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새카만 후배인 아볼로파가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바울을 한참 잘못 본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있으려면 오직 하나님파만 있어야 한다(6-7)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다.

4.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에서 '귀한 것'을 '귀한 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이 주장이 어떻게 옳지 않은 말인가? 또, 이 질문이 본문(5-7)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귀한 것'이란 말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교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귀한 것'이란 표현은 예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라는 표현(5)의 '무엇'은 (누구냐?'고 하지 않고) 아볼로나 바울을 낮추는 표현이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아무 것도 아니라'(7)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도 존중하던 아볼로나 바울이 아무 것도 아니란 점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강조하는가(두 가지)?

주와 사역자: 예수는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종이라는 말이다. 사역자라는 말은 집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다. 일꾼이요, 종이란 말이다. 하긴 높은 사람의 운전수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운전수를 더 높게 대접한 셈이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 ↔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수고를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없다면(씨앗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6. 정말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닐까?

자라나게 하는 이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이다(7):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일꾼이라는 말이다. 아이는 저절로 자랄까, 부모가 키우는 걸까?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 저절로 자란다. 출생, 단계별 성장, 말 배우는 것, 대 소변 가리는 것... 부모가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애정도 쏟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두신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을 다진 사도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가끔 '개혁 교회를 몇 십 개나 세웠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지만 바울에게 비하면 새발의 피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씨를 심거나(7-8), 교물의 기초를 닦은 것(10)

8.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비하면 자신들의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바울이나 아볼로가 동역자(우리는... 동역자)라는 뜻: 이 표현은 해석상 약간의 이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란 말이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고후 6:1) 여기서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9.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일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지혜롭게 터를 닦아야 한다(10): 면밀하게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가게를 열어서 개업예배를 드리고, 온갖 복 받으라는 기도를 다 하게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하나님만 믿고 가게만 열면 손님이 저절로 찾아온다?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다.

10.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11).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다 교회를 세웠기에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바울이나 아볼로: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꾼일 뿐이다.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주었고 세례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세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한다.

11.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금이나 은이며 무엇이 나무나 풀일까?

성경말씀이 금이나 은이라면 인간적인 도리, 철학, 공교한 이론은 나무나 풀이다. 설교는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2. 공력이 불에 타도 구원은 받네? 구원을 받으면 엄청난 기쁨만 넘칠 텐데 부끄러울 수도 있을까?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바울파나 아볼로파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란 불에서 갠신히 건짐을 받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런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가? 그렇게라도 구원은 받아야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울까?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 점수가 시원찮을 때의 느낌과 비교하면 될까?

13.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권면할 때 가장 어울리는 구절은?

없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구절이 몸을 잘 돌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는 영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영혼을 망치게 하거나 교회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리킨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는 금하기로 했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아니다.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공갈이라도 쳐서 주초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구절을 인용하는 모양인데 주의해야 한다.

14.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멸망 받을 죄다(17, 례 15:31).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는가?

파벌을 만들어 실족케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17). 자신뿐만 아니라 옆의 형제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존해야겠느냐는 말이다.

15.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입장을 헤아림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말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는 평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다.

16.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고, 자기 궤환에 빠지는 것이라면 굳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한 것을 보면(모세, 에스라, 바울, 누가, 마태) 공부를 하기는 해야 하는 모양인데?

진정한 지혜의 토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공부가 문제일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공부는 지혜다.

17. 바울의 결론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무슨 자랑을 했길래?

파벌로 나뉘어 자신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자랑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 예수(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조차 사람이란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숭배하고 따르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이다.

18.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더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랑이란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랑해야 하는데 다 있는데? 가령, 아버지께서 좋은 차를 사 오

셨다.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자기 동생이나 엄마에게 자랑하는 것은 바보다. 다른 집 아이나 그런 차가 없는 아이에게 자랑하는 법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만물의 주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 위대한 자가 무엇을 누구에게 자랑하느냐 말이다. 그러니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4 장

1.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해야지,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1)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강하게 주장해 봐야 역효과만 나는 것 아닐까?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목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헌신하고 노력했음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냉철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부정된다면 그가 전한 말씀마저 버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여기에 '일꾼'이란 단어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다(전함에서 노를 젓던, 눅 1:2, 행 13:5, 26:16). 성도(목사 포함)는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가장 권위를 가진 바울조차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스승 노릇을 하다니!

2. 성도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6), 디모데도(17):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지도자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권위를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3. 본문을 근거로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므로(2) 부디 충성하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런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충성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바울을 가리켜 합부로 사도니 아니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4.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사도니 아니니 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3)? 그러면 왜 그 문제를 이렇게 길게 언급하는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해야 한다. 자기가 사도인지 아닌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조차도 재쳐두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

5.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라는 것(4)은 자랑하는 말 아닌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고 말해 놓고(3)?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 했지만(4)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3)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 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 한다.

6.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고? 최소한 옳고 그른지, 싼지 비싼지, 바보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칭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에만 마음을 두겠다는 것이다. 매사에 아무런 생각없이 살 수는 없다. 매시 매초마다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판단도 없이 생각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께서 사도라고 한다면 나는 사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기 쉽다. 무능하고, 의롭지 못한 면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소극적이 되고 세상을 비판하기 쉽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나를 다시 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7. 지도자가 당연히 본을 보여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을 보였는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6): 성경말씀이 모든 가치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몸소 본을 보였다는 말이다.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이나 체면, 어떤 특정인의 기분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8.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은 원인은 무엇인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성도간에 파당이 만들어져

서로 싸울 수 있겠는가?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똑똑하다고 아무리 우겨도 파당이 생겼다는 것 만으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지도자가 본을 보였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7-8)? 그게 왜 잘못된인가?

구별, 자랑(7) 자신들이 받은 은사, 복음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빠지고 남을 무시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호언하는 분들이 많던데... 주의해야 할 일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부모, 친지, 선생님들에게서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배부름, 부요함, 왕 노릇(8) 자신이 가진 것, 아는 것이 받은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겠지만 배부른 자는 바늘귀를 통과해야 하는 낙타가 된다.

10.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8)? 우리가 왕 노릇 해야 하는 건데?

바울의 가르침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교만을 지적하는 것: 바울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왕 노릇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왕 노릇 하고 있으면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5) 함께 왕 노릇 하지 못하게 된다.

11. 겸손하게 본을 보였음에도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너희의) 왕 노릇 해야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단을 줌 처야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너희의가 아니라 '너희가'이다. 다른 번역들은 대체로 '너희가 왕 노릇 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이다. 우리가 (그 날에)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너희가 (지금 제대로) 왕 노릇 하기를 원하노라는 의미이다.

바울의 진정한 소원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왕 노릇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가 왕 노릇 하고 있다. 미리 당겨서 연습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그러다가 진짜 왕 노릇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12.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 같다는 말씀이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혹독한 책망이 될까?

스승인 우리는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얼 배웠느냐는 말이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호통치면서 제자를 쫓아내는 스승인 셈이다.

13. 바울은 절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낮아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14. 요컨대 바울은 구경거리요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이 되었는가?

부자, 왕: 잘 한다. 어디서 그 모양으로 배웠느냐? 이런 식의 책망이다.

15.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잡혀 왔다. 불려온 학부형이 선생님께 자신의 담배를 권했던 모양이다. 아버지께서 피우던 담배가 학생들이 피우던 것보다 질이 낮은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탄식했다 '아는 500원짜리 피우고, 아버지는 200원짜리 피우다니...' 이런 현상이 정상인가? 본문의 어떤 내용이 이와 비슷한가?

9-13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이렇게 미련해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스승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렇게 잘 나간다. 그럴 수 없다!

16.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더라도 적절하게 달랠 줄도 알아야 한다. 성질난다고 제 분풀이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어떻게 아비 노릇을 잘 하고 있는가?

7-13절은 신랄한 책망, 비난이다. 그러나 14절부터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달랜다. 야단만 치는 아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비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17. '나는 너희의 스승이기보다는 아비니라'고 했는데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무엇인가? 본문의 '스승'은 갈 3:24절의 '몽학선생'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

오늘날의 스승과 의미가 다르다. 어린 아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 일단 스승이 있어도 한 아비와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18.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본 받으라'고 했는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자랑을 하는 바울의 말보다 더한 자랑이 있는가?

바울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를 보라. 그리고 예수를 보라.'

19. 디모데가 무슨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17):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말이다.

20. 16: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이란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아닌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속히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21.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19)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말 아닌가? 동기나 과정을 무시하는 말 같기도 한데?

여기서 능력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말씀대로 사는지 살펴보겠다는 말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순종 없이 말만 무성한 것은 책망 받을 일이다.

22.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단하게 줄여 보라.

제발 말로 할 때 들어라!

고린도전서 5 장

1. 성도가 음행(포르네이아 → 포르노)을 저지를 수 있나?

절대 불가(예 18:8, 신 22:30):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증거다. 원문에는 서두에 '심지어'라는 단어가 있다.

2.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도시였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 여사제(=창녀)들이 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 그런 자들에게도 없는 음행이란 것이 따로 있나?

아비의 아내(아마도 첩이나 계모)를 취하는 것(단회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마는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은 짓이었다는 말이다. 르우벤이 단 한번 이런 실수를 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3.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였음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외형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일지도 모른다. 구원 받은 성도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더욱 당당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4.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도 바울이 독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징계하는가?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4): 교회의 치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이유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혼자서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은 아니지만(영으로 모였으니) 모인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뜻이 아닐까?

5.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사단에게 내어주라: 쫓아내라는 말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출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6. 육신은 멀하고 영은 구원을 얻는다(5)? 그럴 수도 있는가?

육신이 죽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법은 없다: 다만 징계를 통해서(=육신을 멀하는 것)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영혼의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회의 징계는 회개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지 징계를 위한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7. 음행을 저지른 자를 용납하는 교회가 무슨 자랑을 했을까(6)?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온 덩어리)이 많은 교회다(‘자랑하는 것’의 원어상 의미는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랑하는 ‘내용’을 뜻한다). 각종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음행을 용납한다면(=적은 누룩) 그런 것들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죄라고 용납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곧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8. 누룩 없는 자에게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분명히 죄짓고 사는데 죄 없는 자라고 불러 주신다. 용서 받았으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9.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과거의 더러운 흔적을 깨끗이 털어내야(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10. 바울이 지키자고 하는 명절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룩 없는 떡(8): 누룩 없는 떡을 떤 절기인 무교절(유월절에 이은 절기라서 나중에 같은 절기로 취급됨, 눅 22:1)을 염두에 둔 표현 같다. 유월절 양의 희생을 말하고(7) 이어서 누룩 없는 떡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유월절(=새로운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 받음을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11. 성도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면 누룩을 즐기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방인들이 그러한 것이야 관계하지 않더라도 형제가 그러면 내어 쫓으라! 그런 이유로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형제가 그러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전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사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적어도 고린도에서는 말이다.

12.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굳이 할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뿐이다.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가 할 일이 있으니 들어오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교회의 기준으로 책망하고 판단하는 일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단군상을 만든다고 '단군은 우상이다'라며 시위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공공장소에 세울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고린도전서 6 장

1.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송사를 맡긴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

당시의 재판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므로 세상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불의한 것이다. 같은 이치로, 세상 일이란 지극히 작은 일(2)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아줘도 될 만큼(7) 사소한 일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성도가 비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2.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덤비거나 빼앗더라도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는 말인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경우와는 다른가?

너희 중에(1), 형제간 일(5),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6) 신자와 신자 간에 소송을 거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교회의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교회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

3. 성도가 불신자들에게서 재판을 받는 것이 왜 부당한가?

온 세상을 심판해야 할 자(2)가 거꾸로 재판을 받느냐? 그런 것 하나 해결한 능력이 없느냐(2)? 천사도 판단해야 할 자(3)가 사람에게? 만약에 믿지 않는 재판장이 '배운 말씀대로 서로 양보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판결한다면 성도는 뭐가 되는가? 장차 왕 노릇 할 성도가(마 19:28, 눅 22:30, 벰전 2:9, 계 20:4) 이게 무슨 꼴인가? 우리네 조상들은 양반이라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배가 고파도 고픈 척 하지 않았다. 냉수 마시고도 이를 쏘셨다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릴 자가 그 무슨 창피한 짓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체면도 없느냐는 질책이다.

4. 고린도 교회가 법정에 들고 간 문제는 바울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다(2). 설마? 바울은 그것을 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걸까?

장차 성도가 판단해야 할 온 세상(2)에 비한다면: 수동형으로 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이 말을 우리 식으로 고친다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가 된다. 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그렇게 사소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하느냐? 자격이 없나, 능력이 없나? 창피한 줄 알라는 것이다.

5. 2절의 '세상'과 3절의 '천사'는 짝을 이룬다.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다른 짝이 또 있는가?

뛰어남: 세상은 크고, 천사는 능력이 탁월하다(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인정되었다) 반면에 2절의 '지극히 작은 일'과 3절의 '세상 일'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점에서 또 다른 짝이다.

6.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4)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 2절의 불의한 자와 같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 높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느냐?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다. 어른이 없는 곳은 시끄럽기 마련이다(5).

7.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5)?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5):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가 순종하고 따를 만한 권위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 세상 법정의 재판관보다 더 신뢰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권위주의는 나쁜 말이지만 권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권위는 힘이나 재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8.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한국의 법을 어기고도 한국의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핑계야 좋다. 한국 법정이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작에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무지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정도의 염치도 없느냐고 묻는 셈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는 셈이다.

9. 그렇게 송사하면 누가 이길까?

둘 다 패배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7)란 말씀은 둘 다 패배자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명예를 다 저버렸으니 설령 송사에서 이긴다 해도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셈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기는 셈인데... 더구나 송사에서 진 사람과 같은 교회에서 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10.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서 재산문제로 소송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가?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포기해야 한다는 각오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로 교단이 갈라진 예가 있으니(고소파, 반고소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

방이 최선이다. 정말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11. 정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불의한 자들(9-10)이 있었을까? 이론상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1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는 그럴 수 없다. 임마가 씻어준 옷도 합부로 버리면 미안한거늘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씻어준 옷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러나 현재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더라. 안 믿는 사람이겠지?

12. 11절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어떤 관계인가? 별개의 것인가, 동일한 것인가?

일련의(연속적인) 필연 관계: 별개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동일한 것도 아니다. 씻음으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으로 의롭게 되는 일련의 연속된 관계이다. 동일한 것은 아니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경우와 비슷하다. 씨, 싹, 열매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별개의 것도 아니다.

13.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말하고 성도는 법적인 문제로 싸우지 말아야 하나?

세상의 법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만능도 아니요, 최선도 아니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간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정도라면 부부관계는 깨진 셈이다. 이스라엘에도 모세 때부터 재판제도가 있었지만 로마의 법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로마의 법 제도가 자랑할 만큼 발달했지만 인간적인 지혜를 닦는 곳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14. 9-10절은 '불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권고이다. 그러면 12절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유익하지 않은 일이나 제재 받을 만한 짓은 하지 마라: 불의를 넘어서 더욱 범위를 넓힌 셈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떡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다.

15. 5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말하다가 6:12부터 또 음란에 대해서 7장까지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중간에 소송문제가 왜 들어왔을까? 전혀 관계없는 얘길까, 아니면 일관성이 있는 것일까?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소송을 제기하여 교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16.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은 내게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이유 없이 옆의 아이를 때리고는 '내 자유다'라고 장난치던 기억이 난다.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다. 바울은 무엇을 자유라고 말하는 셈인가?

유익한 일이나 타인의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일만 행하는 능력: 자유라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듯 성도의 자유도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17. 음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비유를 든 것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말이다. 속담처럼 보이는 이 말을 음란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뜻으로 사용했을까?

남자(의 성기)는 여자(의 성기)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듯 성욕이 동하면 성행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음행을 자연스런 행위로 여겼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 자들에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몸을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영원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다(13).

18. 몸의 용도가 두 가지인 셈이다. 음란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쓸 수도 있다. 어디에 쓰는 것이 얼마나 유용할까?

음란을 위해서 쓰면 잠깐 즐거울 수 있으나(근강이 유지되는 동안) 주를 위해서 쓰면 영원한 극락(시 43:4)을 누린다.

19. 주님이 몸을 위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 몸이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즉 우리 몸이 주를 섬기는 도구라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돌보시는 것이 당연하다.

20. 음란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었는데 그걸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는 없다(=성령의 전을 창기의 집으로 만들 수는 없다). 마치 전 재산을 주고 산 골동품을 헐하고 바꿔 먹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창기와 한 몸이 될 테냐(16), 주와 한 영이 될 테냐(17)?

21.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18-20)

음행은 일종의 자해행위이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짓이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일종의 자해행위이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짓이다.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은 육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행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굴러서 망치면 더더욱 안 된다.

22. 남자들은 신사복을 입었을 때와 군복을 입었을 때 하는 짓이 많이 다르다.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라고 하는가?

세상을 판단할 자: 현실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신분상으로는 놀랍고도 고귀한 신분이다. 그 신분엔 어울리게 살라는 것이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것: 몸이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23. 음행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흔히 요셉의 예를 든다.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는 눈을 조심해야 하고(마 5:28, 사 14:1) 여자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 남자는 눈이 가는 곳으로 마음이 따라 가고, 여자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따라 간다. 음행 이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7 장

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단순한 교제, 성적인 방종, 결혼? 2절을 참고로 해서 생각해 보자.

음행을 피하라: 2절은 결혼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몹시 문란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런 세태를 본받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2. 만약에 총각이 선을 보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할 이유를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2, 9) 어떻게 될까?

100% 퇴짜를 맞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을 수용할 처녀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한 마디 한다면 '집승' 아닐까? 그러나 결혼에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란 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참으로 요긴하다. 부부간의 성문제가 결코 피해 가야 할 것이 아니므로 진지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렇다고 맞선 보는 자리에서 이런 성경구절을 들이대 가며 용감하게 나설 필요는 없다. 그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위기도 파악해 가며, 절차를 따라 가며 일을 진척시키는 것도 지혜이다.

3.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다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 서로가 성적인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 남녀의 성적인 욕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출 21:10). (결혼 초기에는 남자들의 욕구가 워낙 강해서 많은 부인들이 남편을 변태거나 병적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물물을 가리지 않는 듯한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래서 생겨난 우스개가 신혼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기간'이란단다. 남녀 간의 성차에 대해서 꼭 미리 알아두시기 바란다, 특히 여자들.)

4.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 한다'는 말(4)의 구체적인 의미는?

남편이나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 부부에게는 더 이상 자기 몸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다.

5. 합부로 분방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부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헤어져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에 따른 위험이 훨씬 더 크다. 남편과 아내가 분방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상, 얼마동안: '기도할 틈'이란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 평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6.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고하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날 집을 떠날 목사 남편을 위해서 사모님이 뭘 준비해야 할까?

성관계: 거룩한 일로 떠나는 목사님께 그 무슨 말씀인가 싶겠지만 준비해야 할 많은 것 중에 하나다. 송길원 목사의 책(사모의 심장, 규장, p220)에서 인용하면 '외부 집회 인도나 세미나 참석 차 집을 비울 때는 그 전후로 반드시 성관계를 가진다'

7. 반드시 지켜야 할 것(명령)도 있지만 참고로 들어야 할 말씀(권도)도 있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은 어느 것일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결혼한 사람의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이것은 권고 사항이 아니다. 뒤이어나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권고 사항이지 명령이 아니다.

8. 만약 모든 사람이 바울 같으면 어떻게 되나?

다음 세대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자식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은 모두가 나처럼 되지는 말라는 뜻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처럼 지내라는 말이지 무조건 결혼하지 말고 바울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다.

결혼만 하지 않으면 바울 같아지는 걸까? 이 부분은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문맥이란 점을 기억하자. 결혼하지 않고도 성적으로 순결한 삶(=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9. 정욕이 불같이 탄다? 정욕이 무엇이길래 불같이 타는가?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욕이란 것을 절대로 가볍게,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일생에 걸쳐 수고한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불장난에 깨끗이 날려버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위험성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다.

10.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제시한 인류의 존재방식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조차 결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렘 3:14). 결혼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회이다. 성적으로 방탕하기 시작하면 사회 구석구석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11.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15)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야 하는 어려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갈리거든'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갈라져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화평할 수 있으면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12.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합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너무 종교적인 문제에 얽어매는 것 아닌가? 결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15)

13. 믿는다는 것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거듭났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 전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17):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19)이 필요하다.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믿기 전에 하루 세 그릇 먹던 사람이 믿고 나면 두 그릇을 먹어야 하나? 그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입만 생각하고 먹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고 먹는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14. 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기도 했는데?

할례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할례는 그림자요 (성령)세례가 진품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종이냐 자유자나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에 할례, 무할례가 무슨 큰일이겠는가!

15.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염력(21)이 있었을까?

아마도 '종 주제에 예수를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혹은 '주인과 함께 믿으면 천국에 가셔도 종이 되는 것 아냐?' 이런 류의 염력 아닐까?

16.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23)? 누군 되고 싶어서 되었나? 교회에 오면 주의 종이고 집으로 가면 주인의 종이다. 어찌란 말인가?

현실적으로는 종이지만 이제 주의 종이란 신분으로 변했으므로 종의 마음이 아닌 자유자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다. 잠깐 종으로 있을 뿐 영원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마음의 자유를 누리라는 말이다.

17. 종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가 예수를 믿으면 종이 된다(22)?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주 안에서는 종이냐 자유자나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종으로 있는 자에게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 소원일진대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말하고, 자유자에게는 주의 종이니 너무 자고하지 말라는 충고다.

18.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되라는 말인가?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말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종이냐 자유자나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가르쳐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사회 변혁을 초래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되었다. 제도적으로는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모양이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혁이다.

19. 혼인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쪽에 더 무게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특수한 상황이란 무엇인가?

임박한 환란(26, 28, 29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아마도 곧 불어닥칠 환란을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하도 고되니까 하는 말이 '절대 아들은 낳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말이지 상황이 달라지면(군대가 좋아진대거나, 훈련이 끝나고 뿌듯함을 느끼거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 살후 2:2를 참고하면 이 환란이 예수의 재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20.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 같은데 바울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가?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뜻: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항상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라고 하신 셈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

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29-31)?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결혼이든, 재물이든 그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다.

21.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 요는, 이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35) 결혼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쓰며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혼해도 그 반대일 수 있다.

22. 36절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혼인시키는 것: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란 어떤 번역은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는 일'로 번역하였다. 아마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만한 잘못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혼을 시키라는 말 같다. 바로 다음의 '부득이한 일도 없고'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 '처녀 딸을 시집보내는 자도 잘하거나와 시집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에 따르면 굳이 시집가라고 조를 이유가 없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36절의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37절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등의 표현을 참고하면 특수한 문제가 생겨서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24. 그 옛날에도 재혼을 허용했네! 불신 남편과 사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살라(12-13)고 하면서 재혼할 때는 주 안에서만 하라는가?

전자는 이미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는 말(=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고린도전서 8 장

1.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랑: 사랑 없는 지식은 싸움, 질투, 시기를 일으킨다. 지식보다는 사랑을 가져라(1). 안다고 형제에게 큰소리치는 사람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덕을 세우지 못 하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 하는 것이다). 지식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라(1-3).

2.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다(3)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고 하던데(요일 4:19)?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한 셈이다. 절대로 우리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며(4)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아니 하여도 부족함이 없으므로(8)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본질적인(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믿음 이후의 일, 즉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다.

4.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루어야 하는 원칙은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 이런 문제를 가진 자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것이냐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정해진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형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믿는 자로서 담배를 피울 것이냐 술을 마실 것이냐, 믿는 학생으로서 권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답을 제시하지 말라. 처한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어미가 유식한 자식에게도 당당히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이단자 중에는 밥그릇 싸움에서 연유된 경우가 많다. 사랑의 문제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지혜의 문제가 되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랑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인간이 되지 않은 채 지식만 많아지니 문제가 더 커져 버린다.

5.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아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라는 것(4) 소위 신이라 칭하는 자들은 우상일 뿐이다. 결국, 다른 신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신이 아닌데 우상은 무슨 우상?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다녀 보라. 무슨 죄가 될까? '불능범'이 되어 죄도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헛말로 간주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기는 먹어야 하고 먹으려니 하나님이 두렵다. 지식이 있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고민이다.

6. 세상에는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으나(5)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를 포함한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 분으로 말미암았다. 다른 신들은 할 일이 없다.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꿀을래야 꿀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우상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7. 식물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 것이란다(8)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곱짝 못할 수도 있는데 풍성함이 없다니?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영적으로 아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음식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험이나 마법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지식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사랑으로 취급하라는 말이다. 금식도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금식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금식과 관련 없는 정결의 문제다.

예전에 천부교에 다니던 친구는 술을 먹지도 않거니와 술이 몸에 닿기만 해도 기겁을 했다. 왜 그러느냐니까 술이 닿은 부분은 부활 때 부활이 되지 않는단나? 이런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 씀이 8절이다. 식물은 그런 영험함이 없다.

8.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인데 절에선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를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어

디에 문제가 있는가?

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 신이 어떤 신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이며 성품이 어떠한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신에 대해 사고한 결론은 '신은 존재한다'라는 정도다. 그에 비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가! 이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9.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조심하라(10): 형제를 실족케 할 위험이 없다면 먹어도 좋다. 실족케 할 위험이 있다면 먹지 마라.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무교회주의자이셨는데 노년에 교회에 출석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왜 소신이 변했느냐고 물었더니 소신은 변한 게 없는데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

10. 다른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11, 롬 14:15). 사람이 귀한 존재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현실적이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다. 그 형상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한다.

11. 한국 교회가 왜 술, 담배를 금하게 했는지 아는 어떤 신실한 친구가 이제는 이런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가끔 의도적으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술, 담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이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규정을 고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본인은 스스로 술, 담배를 그만 둘 수 있었지만 괜찮다고 따라서 먹고, 마시던 약한 자들은 끊지 못했다.

12.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깨끗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어떻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12).

13, 8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때 ()에 알맞은 말?

1) 네 모든 일을 ()으로 행하라.

2) 우상 제물은 아무런 ()이 없다(=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자).

3) 우리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이다. 내 ()를 포기해도 될 만큼 귀한 존재이다.

사랑, 영험함(효력), 자유(권리)

고린도전서 9 장

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고 하는데 누가 바울더러 종이라고 했나? 언제는 종이라고(롬 1:1, 갈 1:10) 자랑하더니?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자,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자유자를 가리킨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의미이다. 종이면서 동시에 자유자다.

2.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내세우는 두 가지 근거가 무엇인가?

주를 본 것(1)과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2): 바울이 주를 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 아닐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어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내용(행 13:4)은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인데?

3. 바울이 사용하지 않은 권리는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것, 동부인 하는 것, 일하지 아니하는 것(=사례비 받는 것)

4.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문에 베드로가 결혼한 증거는 무엇인가?

게바와 같이 자매된(=믿는 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5): 교황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 교황이 되었다. 후대에 생긴 교황이 이미 돌아가신 베드로 사도를 1대 교황으로 모신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니 1대 교황께서 결혼하지 않은 걸로 주장하는 것이다. 건강부회? 결혼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것이다.

5. 일하지 않을 권리(7)가 뭐지? 놀고먹겠다는 말인가?

요즈음 말로 하면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여기서 일이란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비를 버는 것'을 가리킨다.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생계를 유지한 것처럼(수 13:33) 이미 사도들이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을 해서 열매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7). 일하지 않아도 열매를 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놀고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8절의 율법도).

7.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신 25:4에 있다. 이렇게 장절을 분명하게 말해주면 쉬울 텐데 왜 '모세 율법에'라고 하는가?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용하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래서 '어디에 이르기를, 누가 일렸으되'란 막연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롬 9:25), 성경에 이르기를(요 7:42),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마 21:5), 어디 이렇게 일렸으되(히 4:4, 7) 등등. 그렇게 말하면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모른다.

8.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일차적으로는 소를 위함이다. 그러나 짐승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소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이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꾸로 소에게 망을 씌우라는 무리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9.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고 해도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례비는 육신의 것이다. 반면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신령한 것이니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10. 바울이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례비를 받는 것이 정당함에도 받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면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 혹시나 어린 성도가 바울의 헌신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셈이다. 목사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얘기다. 목사는 다른 수입원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도 되는데? 바울의 이런 모범을 따르려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목사라면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

11.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14, 막 10:10).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문자대로 본다면 순종하지 않은 셈이다. 자신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므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례비를 요구해도 될 이유를, 노동자, 율법,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 그렇게 근거를 대지 않아도 당연한 일인데...

12. 성경에 좀처럼 없는 말줄임표가 사용되었다. 생략된 말을 보충해 보자.

나를 먹여 살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돈을 탐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아마도 감정이 몹시 격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겪은 마음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온갖 서러움과 냉대를 받으며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어떤 아픔을 느낄까?

13. 아마도 전도 시상을 한다면 대상은 바울이 따 놓은 당상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16):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자랑할 수가 없다. 17절의 '직분'이란 '칭지기의 직'이라는 뜻이며 칭지기는 노예계급이다. 노예는 일을 잘 했다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잘못하는 엄한 벌이 있을 뿐이었다(16). 자신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도무지 자괴 없는 자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격만 살아있다.

14. 상이란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상은 어디다 쓰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상이라고 여긴다. 아!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기도 힘든 나무!

15.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단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쏟아 붓는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진정한 자유인이었기 때문(19): 누구, 혹은 그 어떤 것에 얽매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었기에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16. 바울은 율법을 과감하게 탈피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예가 무엇인가?

할례를 시행한 것(행 16:3)이나 결례를 행한 것(행 21:17-29):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라(갈 5:6)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했다.

17. 바울은 카멜레온이다. 복음을 위한 카멜레온!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 법 아래 있는 자가 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바울처럼 해야 복음에 참여한다면 불가능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원조 눈높이 교육인 셈이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며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

18. 비유는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말하려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리기와 비교하면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같은 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이다.

다른 점: 상 얻는 자의 수. 경주에서는 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웠지만 천국의 상급은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정말 특별한 상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참가상이 가장 크다.

19.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고 메달을 받으면 얼마나 명예로운가? 요즈음은 돈에 더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만 고대 올림픽에서는 돈은 상관없이 없었다. 명예만 있었다. 월계수나 야생 감나무 잎으로 엮은 면류관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렸다. 그래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가?

명예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엄청난 영광이었다. 그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면류관은 얼마나 더 명예로운가를 설명하려는 표현이다.

20.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방향을 잘 잡아서 달려야 하고 격투기를 하는 사람은 대상을 잘 보고 맞춰야 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는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는 것: 바울은 구원 문제에 관한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직분을 주신 그 분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셈이다.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0 장

1. 헬라어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 이 말은 앞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10장의 어떤 내용이 9장과 관련이 있는가?

버림이 되는 것(9:27과 10:5):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당하는 수도 있는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보존)이라는 것도 있던데? 목회적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학비는 없다!" 일종의 공갈이지만 말도 못 하나? 사고만 쳐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다가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야단치는 것이다.

2.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알라는 말인가? 설마 출애굽 사건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출애굽의 영적 의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구름 아래)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하고서도(=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순종치 아니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알라는 말씀이다.

3. 사도 바울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을 무슨 의미로 해석하는가?

세례: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세례로 해석한 것이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집례자? 아니면 방식(세례, 침례)?

4. '다 같은 신령한 식물(=만나)과 음료를 마신 것'을 무슨 의미로 해석하는가?

성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집례자? 아니면 음료와 떡? 음료와 떡의 출처가 중요하다.

5.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롬 6:3-5)

6. 다음 말씀에 '신령한'이란 표현이 왜 공통으로 쓰였을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3-4)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만나와 물이 자연적인 음식과 물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다. 우리 조상들은 신령한 반석에서 난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신령한 선물을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7.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함께 성례에 참여하였음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례에 참여하고도(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

8.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울(본보기)이 되는 것: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 비단 성경말씀이 아니라도 지나간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거울이란 흔히 '본보기'로 번역 되기도 했다.

9. 악을 즐겨하는 자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즐겨했을까? 관주에 있는 대로 민수기 11:4-5, 33-34를 참고하면 이 말은 탐욕을 품은 자를 가리킨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7절을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일까?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품은 자: 곧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하신 것을 먹고 싶어 하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라는 것이다. 광야에서 그만큼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지덕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10. 6-7절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뜻이라면 8:8, 10:25절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하게 식사용으로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말이다.

11. 관음이 그렇게 큰 죄인가? 관통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사적인 것까지 국가가 관여해서 안 된다는 취지로 관통죄라는 것이 없는 나라도 많다. 후진적인 법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인 사랑놀음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곧 **우상숭배 행위**이다: 조상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행음한 것(민 25:1-9)은 바알브올을 섬기는 제사행위였는데, 고린도에는 비너스를 섬기는 과정이 그와 똑같았다. 단순한 간통의 의미를 넘어서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목이기 때문이다.

12. 어떻게 주를 시험하였는가(9)?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했는데? 시험해 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와중에서도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것(=능력 있으면 때려 봐) 불쌍해서 봐주거나, 사랑 때문에 참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계속 대들면 심하게 혼이 나는 법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즉 성령훼방죄라고 하신 것과 비슷하다. 이래도 우리를 용서하실 걸?

13.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은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간음은 우상숭배의 절차이고, 시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면 원망(10)은 우상숭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 아닐까? 고라의 무리들이 징계를 받은 후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했다가 염병이 돈 것(민 16:41-46)을 염두에 둔 말씀이리라.

14.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2)는 말씀에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조상들처럼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하던 자)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5.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것(7-10)을 말씀하시는 이유(=결론)는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말라(13):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16.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란 말인가? 아니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말한다는 말인가?

달래는 썩이다: 너희가 그 정도 지혜는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17.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참여함 = 코이노니아)이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성찬을 언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상숭배와 성찬의 외형상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공통점은 먹는 것:

18. 10장에는 먹는 것에 대한 예를 세 가지나 들고 있다. 그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먹음으로 하나 되는 것: 구약의 조상들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함이고, 고린도인들이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고, 성도들이 만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다. 구약 제사를 예로 든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결과(우상과 하나 됨)를 설명하려는 의도이다.

19.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의 신전 축제에 가서 노는 것도 여가를 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뒤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20. 불신자들은 귀신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면 둘 중에 하나에게라도 복을 받지 않겠냐고 여긴다.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기 때문(22):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가? 진정한 사랑에는 독점욕이 있다.

21. 행동의 근거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법은 인간 행위의 최소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근거로 행동을 해야 하나?

떡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23) = 남에게 유익하냐?: 이웃이나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까? 앞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적 특권과 자유를 포기한 것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22. 한국교회가 술과 도박을 금지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정말 잘 한 일이었다. 현재도 그래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있지만 금지하는 것이 유익이 더 많다고 본다. 대학시절의 일인데,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절대 술을 먹지 않는 내 생일을 축하하느라고 술집 아닌 곳을 찾아 장시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축하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술집을 피해

야 하는가?

결국은 조용한 맥주집에서 축하 잔을 함께 들었다. 그 술잔이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굳이 사양할 의미도 없다. 가령, '너 예수쟁이지?' 그러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한다면 그거야 목숨 걸고 싸울 일이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다. 차려 놓은 음식이야 먹으면 되지만 굳이 제물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종교적인 시험인 셈이다. 그러면 못 먹는다. 음식 자체는 제물이든 아니든 아무런 효험이 없다.

23. 29절의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란 표현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남의 양심 때문에 내 자유가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28절과 연결이 잘 안 된다. 28절은 일단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문맥으로 본다면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의 그릇된 판단을 불러 일으켜서야 되겠는가?'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잘못이야 당연히 그릇되게 판단하는 (연약한 양심을 지닌) 남 탓이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이다.

24. 어떻게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유지만 그것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자의 권리이다.

고린도전서 11 장

1. 세상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

있다: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라. 정 답답하면 '바울'이라고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패배의식에 젖어 날마다 죄만 짓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다는 말이지, 실제로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런 나라도 감히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닮아가기를 노력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

2. 도대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무슨 상관일까?

이어지는 얘기와는 상관 없다. 그러면 1절은 앞 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앞장에서 바울은 우상제물과 관련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본 받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장 구분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3. 남자들의 권위가 허물어지면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등장한지 오래다. 이삿날 남편이 보이지 않길래 찾아보았더니 트럭의 조수석에 앉아 있더라. 버리고 갈까 두려워서! 이런 시대에 바울의 말을 그대로 쓴다면 엄청나게 간이 큰 사람이다. 어떤 말이 그런가?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흔히 비판하기를 바울은 여자를 천하게 여긴 사람이었다,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바울의 진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는 열치기들이나 하는 말이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자, 아이, 노예들이다.

4.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7장부터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은사의 사용, 등이다. 그러면 1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공중 예배시의 올바른 태도: 당시 여자들은 머리에 야쉬막이라는 작은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야 했다. 지금도 중동지역의 여자들을 보면 눈만 내놓고 다닌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외출할 때는 장옷으로 얼굴까지 가렸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이다. 지키는 것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편하다. 그런데 머리에 쓰지 않는 여자들이 생겼다.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멋쟁이 귀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장하는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이거나, 내가 여자냐라는 대장부이거나. 아마 미니스커트를 처음 들여왔을 때 야단스러움에 비유하면 될 것이다. 가령, 어떤 처녀가 예배에 아주 야한 차림으로 왔다면 어떻게 충고하는 것이 좋을까? 말을 잘못하면 반격을 당할 수 있다. '성경에 그런 옷 입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텐동산에서의 모습에 아주 충실하지 않나요?'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이다.

5. 야단 칠 일이 있다고 마구 야단만 치면 반감을 사기 쉽다.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

칭찬(2): 야단을 칠 때 치더라도 칭찬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 아니라 상처를 덜 입는다.

6.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창조 원리를 말하는 것: 7-8절에서 다시 설명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3)는 것은 올림차순(=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어지러운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남자의 머리가 되고 결혼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성과 그리스도의 아들됨이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그것을 닮은 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투영된 것(그림자)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기도 하다.

7. 머리에 무엇을 쓴 남자를 생각해 보란다(4). 오늘날의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오늘날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보자.

아마 귀고리에 화장을 예쁘게 한 남자정도 아닐까? 꼴볼견! 속이 메스꺼리거나...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쓰라는 것이다. 아마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것도 아무렇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때 사람들은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하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고리타분하다고 할 것이다.

8. 칭찬(2)도 하고 가정(4)을 통해서 은근하게 권하더니 이제는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호통을 친다. 야단을 치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공부하기 싫거든 학교 때려 치워라'에 해당하는 말은?

6절: 머리에 쓰기 싫거든 밀어버려라.

9.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나(8)?

일반적인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0. 아무리 야단을 치더라도 그럴만한 설득력이 없으면 순종하는 듯싶어도 이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7-9):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란다.

11.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란다(7)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위임받음: 창조물에 대한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랬다. 범죄한 이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다.

12.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란 말(7)이 무슨 뜻인가?

여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돕는 배필? 조수인가? 다른 짐승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가리켜 돕는 자라고 했다(시 54:4, 시 118:7, 신 33:29, 시 30:10). 조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쩌면 제 역할을 잘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하나님만큼 위력적인지도 모른다. 잘 수행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남자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한다. 남자가 여자를 조종하느냐 여자가 남자를 조종하느냐?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가 있더냐? 여자가 본연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는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기려고 힘을 쓰고 악을 쓰면 이기기 어렵다.

남자가 도저히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니 내가 나서야겠다고 해서 나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도 힘들고 남자도 힘든 일이다. 더 좋은 것은 남자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를 잘 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관계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

2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창조 질서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뜻에서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과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물론 문자 그대로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있다. 예배 시간에 단정한 차림이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반지를 끼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는 표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굴종의 의미가 아니듯이 머리에 쓰는 것도 권위 아래 있음을 뜻하지만 결코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의 역할이 다를 뿐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와 협력이 전제된 표현이다.

13.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어졌다.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여자는 남자와 싸웠다. 그래서 이기기도 했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끝없이 싸울 것이다. 바울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말하는가?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8-9). 남자를 대표로 세웠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 말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다.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체적인 차이는 여기에 비하면 한참이나 부수적인 것이다.

그 외에 성품, 사랑하는 방법, 사고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다. 내가 너희들한테 여자여야 할 이유가 뭐냐(남자 동료들에게) 당당하게 서기 전에 여자다운 방법으로 당당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카드빚을 지고 연체료를 내는 남편을 보고 욕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다. TV 좀 그만 보고 집안일 좀 도와 달라고 입이 달싹거리는 것을 참고 '당신이 그림자'고 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

14. 남자와 여자는 말은 역할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다르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점(12): 창조의 과정과 질서에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15. 유익이 못 되고 해로운 모임이라면(17) 모이지 말아야지?

그래도 모여서 유익이 되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 '공부 그래 하려거든 학교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 두면 안 된다. 더 터진다.

16.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와 성만찬에 대한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

성만찬의 문제: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칭찬으로 시작했지만(2) 성만찬의 문제를 말하면서는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다(17, 22). 아마도 성만찬만의 문제가 아니라 12-14장에 이르는 책망(은사의 문제에 대한) 전부를 염두에 둔 것이리라. 18절이 첫째 다음에 둘째가 없는데 아마도 12장에서 시작되는 책망이 둘째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17.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쟁이 있기 때문(편당) 이겨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 의도는 성찬의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보다는 책망하기 위함이다. 성만찬의 이런 의미도 모른 채 먹는 일에만 열심이나?

18. 편당이라는 것이 전혀 무익하지만은 않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누가 옳은 사람인 줄 드러나게 함(19) 19절은 일종의 비꼬는 표현이다. 문제가 어려워야 진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너무 쉬우면 누가 잘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다 100점인데!

19.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의 성찬예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식사였다(21). 애찬이라고 하는가? 먼저 온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배가 고프다면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다(20). 그럴 바에야 집에서 먹으라(21, 34)!

20. 예배 마치고 식당에 빨리 가야 편하다. 혹시 뒤에서 얼쩡거리다가 밥이 부족하면 곤란하잖아? 이런 사람에게 사도는 뭐라고 하는가?

집에서 밥 먹어라.

21. 그러니까 여기서 야단맞는 고린도 교인들은 엄밀히 말해서(요즈음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부끄럽게 한 죄(22)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한 죄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성만찬을 설명한 결론은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것이다(33).

22. 흔히 말하기를 교회가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찬 예식은 추도식인가?

아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24, 25, 눅 22:19)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 없는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를 기념하는 내용 속에, 죽음, 부활, 재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신다(26).

23.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잡히시던 날 밤 만찬장에서였다.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이라는 말이다.

24.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이다. 왜 이렇게 야만스런 말씀을 하셨을까?

대속적 죽음에 대한 상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긴 죄로 죽어야 하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25.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가 주의 떡이나 잔을 마시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오히려 죄인이 꼭 먹어야 하는 것 아닐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먹으라는 뜻이다. 28절의 '그 후에야'(후투스)는 '이와 같이'라는 뜻이다(바울 서신에만도 70회 이상 등장하는 흔한 접속사). 세례받기 전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 동안엔 주님의 대속적 은혜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우리의 죄는 성찬에 더 간절하게 참여해야 할 이유가 된다. 결론은 서로를 배려하라는 의미지 먹지 말라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33).

26. 성만찬은 새 언약이란다. 그러면 이전 언약은 무엇일까?

모세의 언약(출 24:8)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를 쓰고 지키려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신 것이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약속의 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제정될 필요가 이미 있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렘 31:31-34,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실 새 언약에 대한 예표이다.

27.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죄(심판, 판단)를 먹고 마셨기 때문(29)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끼리 먹고 마시는 교회에 병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다.

28. 31절의 '판단'은 징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32)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 성찬에 관한 부분은 복음과 상황 182호 참고하였음 >

고린도전서 12 장

1. 이방인과 말을 못 하는 우상(2)은 잘 어울리는 짝이다. 그러면 1절에서 대조적인 다른 짝을 찾아 보라.

형제와 신령한 것(혹은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 말 못 하는 우상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끌고 갈까? 말 못 하는 우상 뒤에 말 하는 인간이 있어서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끌고 간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끄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스스로 끌려가기도 한다. 일종의 사기다. 속고 살았다는 말이다.

2.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주제는 '신령한 것'(1)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7-11): 영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3.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3)?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마 16:17):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즉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오랜 후에 받았는가? 우리는 오랜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또 주시는 특별한 은사였다. 방언이나 신유는 성령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별한 선물이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4.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능력도 많다. 누구는 저런 능력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내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신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능력만 크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보고 감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한 분이신 성령, 주, 하나님(4-6)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의 본질이다. 우리는 은사의 현상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과자봉지에만 집착하는 아이처럼!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다른 형제의 은사를 질시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어야) 그 분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비유컨대 나다나엘 호존의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 어니스트는 평생토록 자신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자신이 바로 은사 자체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5.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이 은사(카리스마톤), 직임(디아코니온), 역사(에네르게마톤)도 삼위일체다(4-6).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고, 주께서 직임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을까?

은사는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직임은 그런 은사를 가진 자가 담당할 분야(봉사, 수행, 연보)이다. 역사는 은사를 가진 자가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유익을 위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다.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 은사의 목적은 '형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이다(갈빈).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지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면 교회는 마치 벽돌공장에 끝없이 쌓아놓은 벽돌더미처럼 된다. 제대로 된 코물이 되려면 문짝도, 창문도, 지붕도, 화강실도, 보이지 않는 정착조, 하수도도 있어야 한다.

7. 성령의 은사라면 흔히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는가?

가르치는 은사(8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28절: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이나 통역은 훨씬 다음이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낚시의 떡밥에 해당한다면 가르치는 은사는 낚시바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한다. 찬양집회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8. 바울은 모든 은사를 다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은사만 지적했을 뿐이다. 여기서 9가지 은사를 지적했다고 해도 되겠지만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잘 보면 달리 분류할 수도 있다. 몇 가지 은사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까?

세 가지: '다른 이에게는'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9절의 '다른 이에게는'이란 표현은 8절과 구별짓게 하면서 연이은 4개의 '어떤 이'와 한 그룹으로 지적적인 능력을 가진 그룹이다. 그러면 8절의 두 '어떤 이'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그룹이고 10절 중반의 '다른 이'와 그 다음의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그룹이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9절의 '믿음'과 10절의 '예언'은 일반적인 의미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9절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기적에 관계된 믿음,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다. 10절의 예언도 14장 1절의 예언(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도록 올바르게 이해하여 가르치는 것과 의미가 달라 보인다.

9. 은사로서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

지식: 말씀을 가르치는 이지적 은사

지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실천적 은사

10.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약성경이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신학교도 없었다. 자칫하면 가짜 성경이 판을 칠 수도 있고 가짜 사도들이나 가짜 교사가 설칠 수도 있었다. 사도 바울조차 가짜 사도 시비에 말려들었을 정도이니 사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때 특히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 있었을까?

영을 분별함(10): 자칭 사도, 혹은 선지자, 교사라고 주장하고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시에는 교회를 지키는 데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었을 것이다. 성경이 널리 보급되고 목사가 수도 없이 많은 현재에도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11. 엘리야, 엘리사가 행한 많은 이적이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한 것(행 5:1)이나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것(행 13:11)도 은사다. 이런 것은 무슨 은사라고 하는가?

능력행함(10):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표현이다.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특별한 역량을 보임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12. '예언함'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를 가리킨다. 예컨대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구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아 가르치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의미일까?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여 가르치는 것: 점쟁이처럼 내일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죽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신 18:10-14).

13.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리 유익하지 않다. 은사는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14.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었던 모양이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즐비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단다. 사공을 쫓아내 버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12-27)?

각 지체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한 몸이란 것을 기억하라.

15. 12절의 문장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문맥이 자연스럽도록 한 단어만 다른 단어로 대체시켜 보자.

'그리스도'를 '교회'로: 그리스도를 교회와 동의어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과연 동의어인가? 믿는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표현을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이다.

16. 발과 귀가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난 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다(몸에 붙지 아니 하였다):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떨어져 나갈 수도 없거니와 떨어져 나가 살 수도 없다.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으니 죽으나 사나 한 몸이다. 제 역할만 잘 하면 된다. 유기체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말이다.

17.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엄청난 충격파가 몰아쳤다. 불신자들에게 충격적이리 만치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끝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였다. 본문의 어떤 표현이 당시의 불신자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이었을까?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몸이 되었고(13): 종과 자유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이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지배적인 지금도 대기업의 사장과 말단사원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출세한 여릴 적 친구를 만나고 온 사람이 '개는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더라'고 한다. 반갑게 맞아주고 옛 우정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왔음에도 더 이상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없더라는 것이다. 하물며 그 옛날 종과 자유자가 하나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도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반이 상놈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18. 모든 지체가 명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15-21)?

1) **지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라(15-16):** 코가 손을 보고 한 몸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그 몸을 떠난다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는 남이 아니다.

조금 뜻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나누고 갈라지는 것은 몸을 찢개는 짓이다. 교회를 나누는 행위를 자신의 몸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하지 말라.

2) 모두 똑같이 지려고 하지 마라(17-20), 소명에 만족: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를 계발하라. 아닌 게 아니라 몸에 눈만 잔뜩 붙었다거나 발만 잔뜩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

3) 다른 지체를 무시하지 마라(21):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다. 다른 지체가 할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19. 우리 몸에서 가장 소용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요긴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라.

신앙으로 살려는 남자 아이들은 스스로 고자가 되려는 꿈을 꾸는 경우가 더러 있다(마 19:12). 신앙생활에 도움은커녕 심각한 방해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20. 은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6, 22, 24)?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6)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말이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더 요긴하다(22).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귀하게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이다(24).

21.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답은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반대편 아이가 울면 한 사람이고 울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집결하여 함께 싸운 것이 이런 사고방식에 연유하였을 것이다. 바울의 설명대로 하면 우리가 한 몸인 증거는 무엇일까?

고통도 영광도 함께 하는 것(26).

22.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는데 왜 목사가 없지?

역할을 보면 선지자나 교사가 오늘날의 목사인 셈이다.

23.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8-10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28절에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이 추가되었다.

24. '다 ~ 겠느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29-30). 다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가 부럽다 못해 시기심마저 생긴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 되지 못함(26-27): 부러운 은사를 가진 형제를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지체이므로 그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요,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면 시기할 이유가 없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므로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 것이므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25.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겠다는 제일 좋은 길은 무엇일까? 14장 1절을 참고하면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정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여야 할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로 돌린다.

14장의 예언의 은사: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매력적이고 대중적인 방언의 은사를 좋아했던 모양이다. 다른 더 소중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잘 보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곧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한다(3, 6, 19). 결국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 장

1. 2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3개 국어는? 아니 모든 언어에 통달했다면? 우리는 영어 배운다고 10년 이상 고생을 하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복되다(1): 사람 사이에 통하는 모든 언어뿐 아니라 영계마저 통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2.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와 대조를 이룬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의미 없는 소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겠는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선물이 선물답지 못한 것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울의 이 표현이 강조하는 힘이 훨씬 더 세다. 중국사람만 빵이 쉰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도 정말 대단하다. 어떤 분이 가사가 없는 교회 음악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단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연주라도 메시지를 직접 들려줄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을 주는데도 말이다.

3. 평균 IQ 100인 사람들에게 IQ 120이면 천재라고 불리고 IQ 150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면 IQ가 얼마나 될까?

신'이지 머! 인간으로는 그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란다. 사랑의 위대함을 이보다(1-2)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4.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눈을 팔겠다는 사람의 애기도 우리의 눈시울을 붉게 한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없을 수도 있나?

가정해서 하는 말이다. 설마 사랑 없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만약 사랑 없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다.

5.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란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가? 사실은 뭔가를 얻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일 뿐이다. 진짜 사랑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지 않아도 오래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사랑하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주지 않아도 때가 되기를 오래 참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사랑일진대 기본이 오래 참는 것이다.

6.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다. 본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시작(4)과 끝(7)이 참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인류는 언제 끝이 났었을까? 선악과? 홍수? 바벨탑? 그 뒤에도 끝장이 났을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

7. 억지로 참으면 표정이 밝을 수 없다. 그러면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은 무슨 관계일까?

참는 것이 소극적이고 내면적인 사랑이라면 온유한 것은 적극적이고 외면적인 사랑이다. 온유는 참는 정도를 넘어서 선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8. 예언, 방언, 지식이 왜 폐하게 될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달하는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아는데... 모든 것을 아는데 굳이 말(=방언)로 표현할 필요도 없다. 완전한 지식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의 어설픈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9.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8)?

과일이 다 떨어진 나무를 생각해 보라. 다른 은사들은 겨울에 앙상한 나무처럼 되더라도 사랑은 사시사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영원하다는 말씀이다. 다른 은사가 유성이라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별이다.

10.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진히 계시를 받아서 평생 가르치며 전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을 뿐이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우리는 뭐야?

농땡이 중의 상 농땡이고 바보 중의 바보지 머!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폐하여지지 않을 것을 소유하였으니 말이다.

11. 아이들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가끔은 '싸가지 없는' 말도 곧잘 한다. 그런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어른도 더러 있기는 있다. 수준이 비슷해서 그렇지 않을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버린 '어린 아이의 일'이란 무엇인가?

사랑 아닌 그 무엇(예언, 방언, 지식):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어린 아이의 말은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들이다. 사랑 없이 섬긴다고 한다면 이것도 버려야 할 것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사)을 사랑 없이 행한다면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은사를 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12.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나?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처럼 평평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구리로 만든 거울인데다 먼이 고르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곧 올 것이므로 그 세상에서의 삶을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 세상에서까지 가장 귀하고 요긴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4 장

1. 사랑을 따라 구하라(1)는 말에서 사랑은 목표일까 방법일까?
목표: 사랑을 좇아가라는 말이다. 방법이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일을 할지라도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훌륭한 사업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고생한 형제들끼리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게 되었다면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2. 바울의 말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라(5, 18) 방언을 하는 것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1)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이다. 바울은 예언하기를 권하면서 방언을 무가치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단지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방언은 자연스레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 방언의 필요성이라면 하나님께 하는 것(2),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22)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5),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18).
3.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일이었다는 뜻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했다(롬 11:25, 골 1:26...). 2절의 '비밀'도 그런 뜻일까?
놀라운 것이라기보다는 별 의미가 없는 것: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의 비밀은 계시로 인해서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비밀은 결국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말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문맥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방언으로 하는 것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4.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2, 6, 9, 13) 반면에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기도 하다(4).
5. 예언이 무엇인가? 장래사를 미리 알아맞추는 것인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3)인데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19), 책망하는 것, 판단하는 것,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는 것(24-25), 배우게 하는 것과 권면을 받게 하는 것(31)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한다(4):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계시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내어 전하는 것을 말한다(벰전 1:10, 벰후 1:19-20, 계 10:11).
6. 5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라'는 말을 '..방언을 말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가 더 위대하나라'로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는가?
 의미는 비슷한데 방언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원어의 표현은 후자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문처럼 바뀌었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겼던 때문일까?
7.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다. 이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이 될까?
 계시는 다른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다른 아무 은사도 소용이 없다. 계시가 있어야 깨닫게 되고(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지식이 된다(지식은 계시를 받은 성도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다.
8. 옛날 중세 때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다. 라틴어만이 신성한 언어로 여겼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설교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알았더라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6)? 루터가 로마교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힌 중요한 범죄 중의 하나가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일반 대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로마교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다.
9. 저(피리)는 부는 악기고 거문고는 튕기는 악기다. 악기들마다 음색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무엇이 달라야 한다는 말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소리를 분명하게 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피리는 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하고, 거문고는 분명하게 거문고 소리를 내야 한다. 이어지는 나팔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비유다.
10. 나팔이 진격을 말하는지, 후퇴를 말하는지 뭘로 아는가?
다른 선율: 이게 분명치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 뜻을 모르는 방언으로 공중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다는 말이다.
11.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야 할 때가 더러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가급적 어려운 말로 하면 된다. 가르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다.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다(9). 배우는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르침의 기본이다. 초등학생을 앉혀두고 어른들의 말로 설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설교에서 회개를 강조할 것인지, 행함을 강조할 것인지, 상급을 강조할 것인지는 성도들의 상태를 잘 살핀 뒤에 결정할 문제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강조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순서가 많이 바뀐 일이다.

12.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왜 야만인이라고 할까? 무식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란 뜻: 번역상의 문제인데 당시로는 헬라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인은 곧 야만인이었다. 외국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13.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12)?

교회의 덕 세우기(3, 12, 17, 22)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여 얻었다 하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아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어야 옳다. 그 능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랑하기 위해서 쓸 수는 없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 많다.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자신의 신령한 능력을 사용하기란 엄청난 인내와 자제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14.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13)?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표기도: 개인적인 기도야 굳이 통역이 필요치 않다. 만약 대표기도를 방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아멘 할 수 있겠는가(16)!

15. 영으로 하는 기도(찬미)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찬미)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14)?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남이 알아듣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16절 참고)?

영으로 하는 기도(찬미)는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신도 못 알아듣는 기도라면 일종의 무아지경 아닌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뿐이다. 반면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찬미)는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가 작용하는 기도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가 이것이다.

16. 교회 안에 웬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있는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나 기독교에 의문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들이 ‘어찌 아멘 하리요?’ 설교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는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끔은 자신도 잘 모르는 채 열변을 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지도 모른 채 혼자 열심을 내기도 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방언’ 같은 설교를 하는 수가 생긴다.

17. 예언이 방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3, 22)

18. 바울은 분명히 방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는 방언을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조금은 부정하는 쪽: 개인적으로는 하되 교회 앞에서는 자제하란다. 굳이 하려면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라도 가르치든지...

19. 느닷없이 말하는 지혜와 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20)인가?

지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악은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를 자랑삼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셈이다.

20. 21절에 인용된 본문(사 28:11-12)의 본래 의미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그렇다면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려주겠다’는 것이다. 징계로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과 상관이 있는가?

온통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응(23): 그렇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침입한 외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방언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방언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22)임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21. 방언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뜻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모두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반면에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하는가?

미쳤다(23) ↔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25): 예언하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허물

을 알고 책망을 한다는 말은 특별한 경우(베드로, 바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성도들의 모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26) 왜 예언이 없을까?

가르치는 것과 계시가 내용상 예언과 동의어이기 때문: 6절에는 가르치는 것과 계시가 예언과 분리되어 있다. 좁게 보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이다(7번 참조).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23. 방언이나 예언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나 마구 나서면 중구난방으로 예배가 안 된다. 통역이 없는 방언을 자제해야 할 이유도 예배의 유익을 위함이다. 예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분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예언에도 분변이 필요하다니? 초대 교회에서는 분명히 오늘날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도 없었고, 말씀을 가르칠 목사도 없었으니 그래야 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도구처럼 사용하시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예언에도 그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으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분변할 필요가 있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오늘날에는 더욱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변해야 할 이유가 있다.

2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한 마디로 인해서 여자는 목사가 되거나 설교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바울의 이 말이 여자는 앞에 나서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일까?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 또 다른 구절(고전 11:5)과 그 반대의 말을(갈 3:28, 롬 16:1-2(퇴퇴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디아코노스: 고전 3:5사역자, 롬 13:4 사자, 롬 15:8 수종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롬 16, 행 18:24-26), 고전 11:11-12, 고전 11:5(금지하지 않았다) 비교해 보자?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구절이 여자가 나서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다.

25. 원어상으로 36절은 앞단락과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다. 여자들에게 교훈을 주다가 느닷없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된 걸까?

잘 모르겠음: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36절의 '너희'는 남자들이다. 바로 앞에 '그러나'라는 접두사가 있다. 그러면 34-35는 이 남자들의 생각을 바울이 대신 말하는 셈이다>

26. 14장은 예언을 하라고 권하는 내용인데 예언이 무엇인지 관련된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3),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4),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6),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9),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19).

고린도전서 15 장

1.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룬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12):

2.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 텐데 새삼스럽게 알게 하다니(1)?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면서(1)?

전하여준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는 표현이다.

3.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는 것'이나 '헛되이 믿지 않는 것(=제대로 믿는 것)'은 같은 말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전하여준 대로 믿는 것.

4.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진히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오백여 명(6): 재미삼아 생각해 보자. 게바 + 12 제자 + 오백여 형제 + 야고보 + 나 = 오백여 명이다. 왜냐고? 굳이 수학적인 표현인 오차의 한계나 유효숫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게바는 12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고, 12 제자는 오백여 형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태반이나 살아 있을 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소용이 없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어지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다.

5. 예수께서 살아나신 증인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외에 또 다른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3:11절에서 두 가지를 더 찾는다면?

성령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3, 4)과 바울의 회심(9-10): 그 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우연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도저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내가 이런 정도의 체험이나 확신 없이 이렇게 바뀌었겠느냐? 그 외에 추가로, '내가 저희나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것'(11)도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6. 야고보는 12사도나 500여 형제 중에 들어가지 않는가(7)? 그러면 누구일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지 않았다(요 7:5). 그러나 훗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것과 야고보서를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개종하였을 것이다.

7.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칠삭둥이, 팔삭둥이, 팔꾼이: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은 모자란다는 뜻이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겼다(딤후 1:15, 엡 3:). 왜냐하면(원어에 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다(9).

8.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최선을 다 하고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바울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자.

내 힘,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수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10):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계으름을 피우는 것은 철부지다. 스스로 최선을 다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 스스로 온갖 수고를 다 하였음에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노력과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노력을 생각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추수감사절에 추수한 곡식을 가져와도 출애굽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라고 가르치셨던 것(신 26장)과 같다.

9.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12-13)?

사두개인들처럼 영혼, 천사,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세를 믿지 않으므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부활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바울은 성도의 부활이 있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10.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13, 16)?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인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효용의 문제다(156). 즉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왜 했겠느냐는 것이다. 아직도 살아 있는 증인들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장차 그와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논증

이다. 가령, 숙달된 조교의 시범은 그것을 따라서 배울 훈련병들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배울 사람도 없는데 조교가 쓸데없이 시범을 보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11.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왜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인가(14, 17)?

죽으면 끝인데 무엇 때문에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느냐는 말이다(30-32).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이유가 없다.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니... 우리는 미쳤다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겠느냐?

12.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무슨 뜻인가? 설마 '제일 먼저 열린 열매'라고 답하지는 않겠지요?

예시(23) 대표(예 23:10-14): 첫 열매를 보면 앞으로 어떤 열매가 차례대로 맺힐 것인지 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 첫 열매가 맛이 없다면 몇 년을 기다린 보람이 없다. 앞으로 열릴 열매도 다 실패작일 것이기 때문이다.

추수를 하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열매나 곡식의 대표성을 지닌 것이다. 결국 첫 열매는 나중에 수확하는 다른 열매와 동일한 것이다. 예수가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다.

13.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제 2의 아담(혹은 마지막 아담, 45):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망쳐버린 시험을 대신 다시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자(선수)를 교체한 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치른 세 가지 시험(눅 4:1-13)이 하와가 치른 시험(창 3:6)과 흡사하다.

14.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즉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인가?

그 다음 대상은 없다: 23절의 '차례대로'라는 표현이 좀 헛갈리게 하지만 부활에 대한 더 이상의 순서는 없다. 24절의 '나중'이란 말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지만 부활의 순서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불신자들도 예수의 재림 때 동시에 부활할 것이다(요 5:29, 계 1:7).

15. '그 후에는 나중이니'(24)라는 말은 '그 후에 마지막 날이 올 텐데'라는 말이다. 이 마지막 날은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이며 성도가 부활하는 날이다. 이 날은 곧 어떤 날인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 =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날 =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소망이 완성되는 날 =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면서 하시고자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날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기쁨이 깨어졌다가 다시 더 크게 회복하시는 날...

16.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기까지 불가불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25-26)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가?

사망이 멸망당할 날이 있다: 사망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불가불 왕 노릇 하시는 이유가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사망을 멸하면,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어지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사망이 왕 노릇을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왕 노릇 하시면서 사망을 멸한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없겠느냐?

17. 27-28절의 말씀이 '부활이 있다'는 말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 과정에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죽음일 뿐이다. 그 죽음이 멸망당하게 되면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

18.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이지만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율배반이 아니냐?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다.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조차 없다.

19. 부활이 없다면 바울과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어리석은 짓인가(30-32)?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날마다 죽는 것: 차라리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낫지! 맹수로 더불어 싸우는 것도 명예나 부가 생길지는 몰라도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요, 무모한 짓이다. 이겨 봐야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못한 짓이라는 말이다.

20. 결과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떤 자와 동일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34): 부활을 부정하면서 바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사는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하는 셈이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는 이 말은 일종의 속담처럼 사용된 모양이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근목자혹’이다.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34절의 ‘깨어’)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21.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썩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바울의 대답이 아주 길다(36-54). 요점만 말한다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한다. 씨가 썩어서 온전한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듯이 더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22.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해한 부활은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한다. 부활의 이전의 우리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37-44).

종자와 형체(37-38): 종자는 ‘뿌려진 씨’ 형체는 ‘다시 살아난 씨’라고 할 수 있다. 뿌려진 씨가 썩으면 전혀 다른 모습, 더 크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연속성을 가진다.

다양한 형체(38-41): 비슷비슷한 모양의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다양한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부활한 우리의 모습도 현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하물며 뿌리기 이전의 모습도 이렇게 다양한데(39-41) 다시 살아난 형체는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질적인 향상(42-47):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육 있는 자가 신령한 자로,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로 다시 살게 된다.

23. 45-46절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함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게 닮은 점이 있다는 말이다. 그게 무엇인가?

변화: 첫 사람 아담은 (변하여)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도 (변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이 흠이 변하여 산 영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육 있는 자를 변하여 신령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다.

24. 48절의 ‘무릇 흠에 속한 자’는 ‘저 흠에 속한 자’와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47절에 따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임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전자는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흠에 속한 자’를 가리키며(↔ 49절의 은혜를 입지 못 하는 자) 후자는 ‘현재 흠에 속한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면 그 다음의 ‘하늘에 속한 자’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비록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는 장차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25.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50):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썩을 몸으로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슈퍼맨에게 우리가 입는 옷을 입힌 꼴이다. 슈퍼맨이 제트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데 그런 옷을 입혀 놓으면 다 찢어져 버린다.

26. 부활한 몸으로의 변화(52-54)를 설명하다가 바울은 감격했던 모양이다. 소리 높여 외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55) 이 장면이 누구와 닮았는가?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 최고의 원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원수, 사망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망이 죽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한다. 사망이 없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그리며 감격하는 것이다.

27.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56)는 말은 율법으로는 도대체 희망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57):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권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다. 이런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58)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6 장

1. 2절은 연보를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특별 연보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평소에 준비해 두었다가 하라.

2. 이를 얻은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란 말이다. 때로는 수입에 따라, 혹은 형편에 따라로 번역됨. 형편 대로란 말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야 한다(=각 사람이)는 말이다. 지정한 액수대로 하라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3. '매주일 첫날에'가 수식하는 말은?

저축하여: '이를 얻은 대로'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매주 첫날에도 일을 하는 셈이 되고 수입의 7분의 1을 연보하라는 말이 된다. '매주일 첫날'은 '매 안식일 후 첫날'이란 뜻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던 주일이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얼마씩이라도 모아두라는 말이다.

4. 너희의 지정한 사람(3)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인가?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갈 사람(3, 행 20:4) 바울 자신이 연보를 거두어서 가져가도 될 텐데?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져가지는 않았다. 불신자들은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목사가 다 가지는 줄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재정을 목사가 직접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지 않았던가? 3절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교회에 쓴 것이다.

5.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은 탓에 어떤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데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 그것도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에게 왜 이렇게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3) 행 11:28, 갈 2:10을 참고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훗날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만 이 때만 해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4).

6. 연보(버릴捐, 고칠, 도울補)란 말은 돈을 드려 돕는다는 말이고 헌금(獻金)은 돈을 바친다는 말이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달리 표현하는가?

은혜(3, = 선물, 고후 8:4) 헌금을 교회가 강요해서 갈취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불신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한 것은 교회의 잘못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감격이 헌금이다. 바울을 이것을 교제(롬 15:26), 섬김(롬 15:31, 고후 8:4, 9:1) 축복(고후 9:5)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7. 금방 고린도로 갈 듯 하더니(6)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니(7)?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머무르겠다는 표현이다 =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이라(7, 3)

8.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지 굳이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6)?

선교여행에 대한 후원을 말한다: 여행에 필요한 제반 필요를 채워달라는 의미이다. 선교는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런 저런 후원을 하는 성도, 교회가 함께 함으로 가능한 일이다.

9.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현재 위치와 차후 여행지를 정리한다면?

에베소(8, 현 위치) → 마게도니아 → 고린도 → 예루살렘(= 나의 갈 곳으로, 6)

10. 당장 마게도니아나 고린도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을 참고하세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전도의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 에베소의 부흥이라고 할까(행 19:17-20)?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들의 소동도 있었다.

11. 고린도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에베소를 떠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 두 가지 조치는 무엇인가?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과 편지를 보내는 것: 디모데는 곧장 고린도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갔다(행 19:22). 그 사이에 편지가 먼저 보내지고 디모데는 나중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보낸 것 같다.

12. 조수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에게 협력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디모데가 약해서 그럴까?

그렇게 약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한 염려일지 모른다(딤후 4:12).

13. 디모데를 보내면서 평안히 돌아오게 협력하라고 당부하는데 아볼로는 가라고 해도 안 갔던 모

양이다. 반항 아냐?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모양인데 아마도 에베소의 일이 더 급했던 모양이다. 권하였다는 말로 보아 아볼로는 바울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역을 했던 모양이다.

14. 교회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잘 될까(13-14)?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랑이어야 한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 것은 브레이크 없이 악셀레이터만 밟는 꼴이다. 공의와 사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슷하게도 감사 없는 정직은 시비가 되기 쉽다. 은혜와 진리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은혜로 지나가는 것도 위험하기는 일반이다.

15.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첫 열매라고 하던데(고전 15:20, 23) 스테바나의 집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

다르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스테바나의 집은 전도의 첫 열매다: 소위 새신자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을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교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16. '교회 일에 너무 열심내지 말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에게 대한 실망 때문이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협력하기보다는 시기하여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좀 어설피도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166): 교회 일은 하기가 참 어렵단다. 다들 똑똑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단다. 일은 하지 않고 남이 해둔 일을 편하하는 일은 잘 한단다.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일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인사나 해야지!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한다(18).

17.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교가 어디서 어디로 왔다는 말인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바울이 있는 곳): 아마 이들이 와서 고린도의 여러 소식을 전해주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브드나도와 아가이교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어쩌면 스테바나의 하인이 아닐까?

18. 아시아의 교회들이란 어떤 교회인가?

아글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교회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한 지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한 주이다. 당시에 아글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으므로 기록 장소가 에베소임을 증거하는 셈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20)고 했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맞추며 인사해야 하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목사가 모든 성도들과 소위 키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똥대加里!

20. 주께서 임하시느니라(22)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도 번역되었다(계 22:20). 이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 타'인데 헬라어 본문에 외래어가 끼여든 것이다. 그만큼 당시에 흔하게 사용된 말이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주로 인사말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인사라기보다는 경고로 사용되었다. 같은 말이 어떻게 인사로도 쓰이고 경고로도 쓰이는가?

주님의 임재는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진노를 퍼붓기 때문이다.